

구 가사마쓰 가옥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이 고민가(古民家)는 마을 촌장이었던 가사마쓰 사타유(1598~1673)의 친척 소유였습니다. 가사마쓰의 혁신적인 개발사업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아리다가와 마을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가옥이 지어졌을 당시, 주변 마을은 농업 및 제지에 종사하는 약 20가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사마쓰 가문이 존경받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은 가옥의 크기와 유리한 입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작은 터는 채소를 기를 수 있게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고 주변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담수가 흐르는 개울도 있고, 아라기지마의 논에 가기에도 편리한 위치입니다.

가옥은 안채, 곳간, 연립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 주택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안채의 초가 지붕은 경사가 가팔라 겨울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가장 특이한 특징은 획기적인 배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근의 깨끗한 개울물을 부엌으로 끌어들이어 사용한 물은 양어장으로 흘러 보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고, 음식물 쓰레기와 설거지에 사용한 물은 흘러 내보내 물고기의 먹이가 됩니다.

오늘날, 아리다가와의 전통적인 시골 생활을 체험하고 싶은 방문객은 가사마쓰 가옥에서 묵을 수 있습니다. 실내 배관과 같은 현대적인 설비가 추가되긴 했지만, 안채는 흙을 다져 만든 현관, 목각 가로대, 다다미방 등 전형적인 고민가의 특징이 보존되어 있습니다.